

보도설명자료 (19. 10. 30.)

수신 :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

제목 : 우리나라의 수주 가능성이 고려되지 않은 세계 원전건설 시장 전체
시장과 국내 해체시장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

(조선비즈 10.3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 우리나라의 수주 가능성이 고려되지 않은 세계 원전건설 시장 전체 규모와 국내 해체시장 규모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정부는 원전해체를 통해 원전산업 전주기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내외 시장성장에 대비하여 산업육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 ◇ 10월 30일 조선비즈 <탈원전 역설...500조 원전건설 버리고 20조 해체산업 키운다는 정부>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기사내용

- 500조 원전건설 버리고 20조 해체산업 키운다는 정부
 - 원전 건설·운영시장에 비해 해체시장은 규모가 작아 기존 산업을 대체할 수 없으며, 별도의 산업으로 보기 어려움
 - 원전해체는 건설·운영과 달리 해외 수출 가능성도 낮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세계 신규 원전건설 시장은 자국발주가 많고, 나머지도 글로벌 사업자가 선점하여 사업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향후 20년간 23기 내외이며,
 - 이 중에서도 도입국의 정치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상세계획이 지연되거나, 결정하지 못한 경우가 다수

- 우리나라의 수주 가능성이 고려되지 않은 세계 원전건설 시장 전체 500조원과 국내 해체시장 규모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

- 원전해체는 원전 선행주기(건설·운영) 경쟁력을 바탕으로 원전 후행주기(해체·폐기물관리)의 역량도 강화하여 원전산업 전주기 생태계 경쟁력을 완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러한 차원에서 건설시장과 관계없이 우리 선행주기의 기술 경쟁력을 감안하였을 때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신시장으로 판단됨

※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서기웅 과 장(044-203-5320)
한진영 사무관(044-203-5321) , 이수연 사무관(044-203-5322)